

뜨거운 함성을 보다

국립광주박물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 촛불' 전 12월 15일까지 주요 사건·생존자 증언 등... 감사평 이벤트 진행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실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눈을 놓는다.”

이 글은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기자(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매일신문)들이 있다. 5·18의 민주화 운동기록관에 소장돼 있는 이 자료는 당시 신문부가 언론을 통제해 신문, 방송 등에 광주의 참상이 보도되지 않은 상황에 좌절된 전남매일신문기자들이 제출한 것이다.

5·18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 비극적인 민주화운동이었다.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지만 5·18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미완으로 남아 있다. 5·18의 민주화 운동을 계승한 87년 6·10민주항쟁 또한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역사였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화의 열매는 5·18과 6·10의 투쟁과 희생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의 뜨거운 함성과 열망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오는 12월 15일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 촛불'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바꾼 10장면' 마지막 전시로 올 한해 달려왔던 현대사의 중요 장면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제9장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는 한국 현대사 최대의 민주화 운동인 5·18에 초점을 맞췄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사건이 소개되며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전시품과 함께 볼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제1 시국선언문'은 전남대 총학생회와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이다. 비상계엄 즉각 해제, 휴교령 폐지 등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남대 5·18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바퀴자국 난 태극기'는 시위 현장에서 사용된 태극기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수습학생시민 완장'도 볼 수 있다. 계엄군이 광주 시내 외곽으로 철수한 5월 22일 이후 부상자 및 시신 등의 수습 활동에 나선 시민들이 역할을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 사용한 어깨띠다.

제10장면 '6·10 민주 항쟁과 촛불'에서는 6·10 민주항쟁의 경과를 살펴보고 그 결실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까지의 흐름이 개괄돼 있다. 아울러 6·10 민주항쟁으로 얻어낸 미완의 민주화가 2016년 광장으로 이어지는 과정 등도 볼 수 있다.



6월 9일 오후 6시에 홍사단으로 모임이다. <고 이한열 열사 추도 및 살인정권 규탄대회 전단 > ▲바퀴자국 난 태극기



고 박중철군 국민추도날 관련 홍보물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에서 고 이한열 열사를 추도하고 살인정권 규탄 국민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전단지는 당시 최류탄에 맞아 친구에게 끌려가던 이한열 열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이밖에 신세계백화점 앞에 앉아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위대, 명동성당 마당에서 시국토론회를 하는 농성참여자와 시민들의 모습, 1987년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공보 등도 볼 수 있다.

각 주제에 대한 100글자 내외의 감상평을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 올리면 선물을 증정하며 마지막 전시까지 감상한 후 설명서에 스탬프를 찍어 제출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무료 관람.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은은한 떡의 향기'

묵취회전, 21~27일 예술인마을갤러리

'은은한 떡그림에 취하다.' 묵취회(회장 김구재) 11회 회원전이 21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예술인마을갤러리에서 열린다. 1993년 결성된 묵취회는 금봉 박행보 선생의 맥을 잇고 있는 문인화가 역량 한상운(금봉미술관장)작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모임이다.

문인화의 전통 계승과 발전에 힘쓰고 있는 회원들은 단산나무, 연꽃, 매화 등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은 다채로운 작품을 떡의 은은한 기운과 활달한 붓터치로 묘사했다. 단순화한 선과 색, 화선지에 자연스레 스민 먹의 맛, 사색의 틈을 채 공하는 여백의 미 등이 어우러진 작품들이다.

참여작가는 위오남·김양숙·김세린·최병철·문연봉·박신숙·김혜란·정규화·고경숙·왕일심·리양미·김준평 등이다. 한상운 작가는 '국화원에서 벗을 그리며'를 전초출품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구재 작 '가도파'



'향기(香)의 향(香)'

옛 것에 대한 그리움 '동지를 품다'

서양화가 서강석 작가의 '동지' 시리즈에는 공통적으로 삼베 문양이 등장한다. 아크릴과 유화 물감을 적절히 섞어 씨실과 날실이 얽힌 삼베의 질감을 고스란히 살려낸 벽에 마치 진짜 삼베 전을 캔버스에 부착한 게 아닌가 싶어 전전히 들여다 보게 된다. 삼베 문양을 기본으로, 작품엔 조각보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문양들을 배치해 조형성을 가미했다. 전통적인 오방색을 적절히 활용한 색채와 소재는 얼핏 한국화 느낌을 풍기기도 한다.

서강석 작가 개인전이 21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10년만에 여는 네 번째 개인전으로 모두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조선대 미술교육과 출신으로 30년 넘는 교사 생활을 마치고 2015년 은퇴후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에 매진했지만 좀처럼 전시를 열지는 못했다. 작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그 안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였다.

전시 주제 '동지를 품다'는 작가의 고요한 내면을 담았다. 그에게 '동지'는 어린 시절의 나와 현재의 나를 감싸주는 따뜻한 근원지이자 늘 고맙고 감사한 존재를 통칭한다. 서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흐르는 건 '정(情)'이라고 말한다.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동지'는 달동네를 형상

화한 작품들이다. 윙크모여 있는 집들은 삶에 지친 이들이 쉬며 위로받고 다시 희망을 얻는 공간이다. 서 작가는 사실적으로 그려낸 집의 형상에서 시작해 추상과 비구상으로 확장하며 작품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밖에 문자추상같은 '마을 이야기' 시리즈도 흥미롭다. 전시 오픈 21일 오후 6시.

서 작가는 교직 퇴임 후 갤러리 개관이라는 또 하나의 꿈을 이뤘다. 20년 전 미술관과 작업실 부지로 마련해줬던 광주 동구 운림동에 문을 연 '여송갤러리'는 보이자 전문점으로 유명한 자유명차 광주점 2층에 자리하고 있다.

넓은 창으로 내다보이는 바깥 풍경이 인상적인 공간은 아담하다. 현재 개관기념전으로 지역 중견 작가 박동신, 유태환, 정미희, 정성복, 최재영 등 5명을 초대했고 모두 20여점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지역작가들을 응원하는 갤러리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관장은 평생 적극적으로 내조해온 아내 이희경씨가 맡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여송갤러리'

전남대 '당신이 옳다' 독서후기 공모

'광주시도민이 읽고 톡하다' 한책으로 선정된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 독서후기를 공모한다. 전남대는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된 '당신이 옳다'를 읽고 작성한 독서후기를 오는 12월 8일까지 접수한다.

접수 결과 재학생과 시도민으로 나눠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6명 등 모두 12편을 선정해 총장상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또 수상작은 광주·전남 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명규 전남대 도서관장은 "지난 4월 올해의 한 책 선정부터 작가 초청 톡 콘서트, 한 책 도서교환전, 한 책 문학기행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독서문화 활성화에 힘써왔다"며 "이번 독서후기 공모전이 지역민간의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책 독서퀴즈 이벤트'는 12월 22일까지 함께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CES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산 엑스퍼트 [혁신기술상] 수상

BIG INNOVATION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국제보청기

2019년 12월 송년모임 **신양파크호텔 감사이벤트** 2020년 1월 신년모임

12월 송년 및 1월 신년모임 감사이벤트 (연회행사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10% 할인
- 음료 · 주류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 제공 ※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 빔프로젝트 무료 제공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회원모집 (월 2회 휴무/매월 2, 4주 수요일)

구분	월	6개월	1년
개인	₩ 300,000	₩ 1,200,000 (월 ₩200,000)	₩ 2,000,000 (월 ₩166,670)

특 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 객실 이용시 50% 할인

Shin Yang Park Hotel 문의 및 예약 ☎ 062)221-4101~3, 228-8000